

# ‘남도답사 1번지’ 강진 관광명소 한번에 둘러본다

10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불금불파’ 경유 버스 운행

광주 유·스퀘어 출발 4개 코스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불금불파’ 버스가 달린다.

강진문화관광재단은 오는 8일부터 10월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강진 병영면 일원에서 열리는 ‘불금불파’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경유 버스를 운영한다.

버스는 모두 4개 구간을 달린다. 강진 병영 대표 먹거리인 연탄불고기를 맛볼 수 있는 ‘불금불파’ 행사는 물론 천혜의 자연을 만나는 강진다일, 백운동원림, 가우도 등이 경유지에 포함됐다. 온 가족과 강진의 역사·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병영 하멜기념관, 전라병영성, 세계모란공원, 시문학파기념관도 갈 수 있다.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는 A코스는 광주 유·스퀘어 2번 승차장에서 출발해 강진 병영 하멜기념관, 전라병영성, 한골목투어, 불금불파 축제장 순으로 운행한다.

금요일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하는 B코스는 광주



오는 8일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금·토요일 강진의 유명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불금불파’ 경유 버스(광주 출발)가 운행된다.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왼쪽)와 다산 정약용이 머물렀던 사의재. <강진군 제공>



유·스퀘어, 강진다일, 백운동원림, 무위사, 하멜기념관, 불금불파 순이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출발하는 C코스는 광주에서 출발해 강진읍내 사의재, 마랑놀토수산시장, 가우도, 불금불파다.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하는 D코스는 광주 출발,

사의재, 다산초당, 세계모란공원, 시문학파기념관, 한골목투어를 진행한 뒤 불금불파에 참여한다.

모든 경로의 최종 목적지는 불금불파 행사장이다. 요금은 왕복 1인당 1만원이다. 참가자에게는 강진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준다.

광주로 돌아오는 시간은 불금불파가 마무리되는

오후 8시이고, 광주 도착 예정 시간은 당일 밤 9시 10분께다.

이번 불금불파 일정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온 마당극 ‘장사의 산’을 만날 수 있는 ‘조만간’ (조선 을 만난 시간) 무대가 포함된다.

이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

지 진행된다. 강진 병영상인을 다룬 ‘장사의 산’ 무대는 흥겨운 노래와 찰진 연기를 마당극 형태로 풀어낸다.

불금불파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금호고속-버스한바퀴’를 검색, 예매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장성군 다음달 개최 ‘황룡강 가을꽃축제’ 막바지 준비 한창

10월 7~15일, 9일간 열어

이달까지 4.5km 구간 환경 정비

장성군이 다음 달 여는 ‘황룡강 가을꽃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장성군은 지난 5일 황미르랜드에서 2황룡교, 행복마을에서 취암천까지 총 4.5km 구간 환경 정비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이 구간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축제는 오는 10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열린다.

‘장성으로부터’를 주제로, 황룡강과 장성호 하류 9만1800㎡ 부지에 만발한 다양한 꽃을 만끽할 수 있다.

장성군은 백일홍, 천일홍,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을 이곳에 심었다.

꽃들은 이달 하순 피어나기 시작해 다음 달 초순부터 중순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장에서는 ‘꽃향기 소리 놀이터’ ‘반려동물 놀이터’ ‘꽃나들이 소풍’ 등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음악교과와 플라워터널, 축제장 음악분수는 아경을 더욱 빛나게 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황룡강 일대 4.5km 구간을 정비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힐링허브정원과 서상장미터널 등 방문객들의 발길이 모이는 곳 위주로 가지치기 작업을 할 예정이다.

사진 명소로 알려진 포인팅정원에는 가을꽃을 심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마와 무더위를 겪어온 터라 린블나방, 깍지벌레 등 병해충 방제에도 신경 쓸 계획”이라며 “축제 기간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화순군,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화순군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화순사랑상품권의 카드형 ‘화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점포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 화순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은 지난해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해 발생한 카드수수료(0.5%)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또는 사업장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화순군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한 뒤 지급대상자로 확정하면 신청 다음 달에 계좌로 지원금을 보낼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화순군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낸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화순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379-3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합평 이전 ‘3차 보상협의회’

“법 정한 기준 넘는 보상 필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합평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3차 보상협의회’가 지난 5일 열렸다.

합평군은 이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한 세 번째 보상협의회를 열었다.

2차 보상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렸다.

오는 8일에는 감정평가사가 한 달 동안 구역별로 현장 실사해 나온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토지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 “보상협의회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가 협의해 합의한 사안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합평군 신광면 일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축산자원개발부가 합평으로 오면 주민들은 거주지와 생계 토지를 옮겨야 한다.



합평군이 지난 5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신광면)’에 대한 3차 보상협의회를 열고 협의회 위원들과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합평군 제공>

임만규 합평군 부군수는 “당사자의 합의로 관련 법의 손실보상 요건을 완화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보상이 가능한 지 법률 검토하겠다”며 “이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 원활히 이주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강진서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열린다

10월 14일 갈대축제 무대에서 본선

강진서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열린다. 강진군은 오는 10월13일 개막하는 제8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앞두고 2023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예선전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리고 이후 10월 14일 오후 강진만 갈대축제 특설무대에서 본선 무대를 갖는다.

예선 접수는 오는 10월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강진지회 사무국으로 성명, 연락처, 지역, 곡명(가수명), 출생연도를 작성해 문자 메시지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1988년생까지 가능하다 음반을 발표한 적이 있는 경우 참가가 제한된다. 참가 부문은 트로트이며 별도의 참가비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2023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는 대상 1명에게 상금 300만원과 가수 인증서를 주는 상장이 수여되며 그 이외에도 9명의 시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들은 물론 전국의 예비 가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통해 2023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제8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와 함께 올 가을을 멋지게 맞이하자”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윤병태(왼쪽 세번째) 나주시장과 김장현(왼쪽 네번째) 한전KDN 사장 등이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도입복지시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나주시-한전KDN 노인복지시설 지원 협약

안전관리 ‘AI 영상분석 기술’ 도입

나주시와 한전KDN은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도입한다

나주시는 지난 4일 노인복지시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전KDN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영상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화재나 연기, 수신호, 쓰러짐, 배회, 위험지역 접근 등을 감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은 나주시가 인공지능 영상분석 시스

템 설치를 지원하고 한전KDN이 서버를 구축·운영하는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6개 노인복지시설에 영상분석기술이 탑재된 CCTV 및 APC(인원계수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서버구축 완료 후 오는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한전KDN의 첨단 영상분석 기술로 재난취약시설인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이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으뜸 나주를 만들어 가는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정남진 장흥 통일 열차’ 참가자 모집

군민·향우 380명...10월 20일 출발

장흥군이 오는 10월20일 출발하는 ‘정남진 장흥 통일 열차’ 탑승객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장흥 군민회관에서 집결해 광주 호천역에서 경기 파주 도라산역까지 412.3km 구간을 열차로 이동한다. 군민 또는 향우 380명만 탈 수 있다. 열차 운행 중 강연, 공연, 비무장지대(DMZ)와 제3땅굴 투어도 프로그램에 포함돼 분 단 협실을 이용할 수 있다.

장흥군은 출발 전날인 10월 19일 저명인사를 초청해 공직자 통일 역량 강화교육, ‘장흥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본다. 100문 100답’ 행사도 열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통일 시작의 땅’ 장흥에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이 광화문을 지나 중강진까지 이르기를 기원한다”며 “다양한 통일 관련 사업을 발굴해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